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과 그 국어교육적 의미*

—동성(transitivity)을 중심으로—

박종훈**

< 차례 >

1. 서론
2. 텍스트의 생산과 언어 장치-체계 기능 언어학의 기본 관점
3. 동성의 개념, 유형, 구조
4. 텍스트 분석의 사례
5. 결론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 및 그 국어교육¹⁾적 적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기능적 분석’이란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관점에 의한 텍스트의 분석을 말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음운에서 담화에 이르는 각 층위의 언어 형식들이 언어 사용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를 기술하여 텍스트를 설명한다. 물론 각 층위의 언어 형식들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국부

* 이 논문은 2007년 4월 1일에 개최된 개신어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국어교육의 외연은 학자들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 글에서는 ‘국어 교육’을 ‘표현·이해 교육’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언어 형식들이 어떻게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텍스트의 목적에 기여하는가를 밝힌다.

이러한 분석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국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 언어 변인 중심 접근의 이론을 강화함으로써 국어교육 이론과 실천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국어교육의 변인은 크게 언어 요인, 인간 요인, 활동 요인, 교육 요인으로 나누어진다(최현섭 외, 2005 : 56). 또한 국어 활동의 요인은 언어 요인, 사회·문화 요인, 개인 심리 요인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이삼형 외, 2000 : 185). 이들 중 ‘언어 요인’과 관련된 국어교육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이론적 기저를 마련하는 것이 국어교육학자가 텍스트를 기능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일차적 목적이다.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라는 자명한 명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언어 요인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이라는 현상 자체가 학습자의 심리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질이어서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 중심 이론이 학계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어교육의 방향도 심리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쓰기교육 영역에서 과정 중심 이론을 국내에서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 논저(이재승, 2002 : 266~341)에서 소개하고 있는 ‘과정별 쓰기 지도 방법’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언어 요인’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하기’²⁾ 지도 방법은 ‘내용 생성하기’

2) ‘표현’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박중훈(2004)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재승(2002)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하기’는 다음의 ②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 ① 내용을 생성·조직하고 그것을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표상하고 실체화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text producing process) (예 : ‘국어 이해와 표현 활동’, ‘국어 표현 교육론’)
- ② 위 ①의 과정 중 내용을 언어 형식으로 표상하는 단계만을 일컫는 말(formalizing process, realizing process) (예 : ‘쓰기 과정은 ‘내용 생성-내용 조직-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위 ①의 결과로 만들어진 텍스트(produced text)의 형식적 측면. 주로 ‘내용’의 반대말로 사용됨. (예 : ‘이 글의 표현은 너무 조악하다.’)

나 ‘내용 조직하기’ 지도 방법에 비해 상당히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제시되어 있는 지도 방법들도 언어 형식 그 자체에 대한 명시적 앎과 사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말로 쓰기(oral composition)’나 ‘내리쓰기(speed writing)’ 등 전략의 성격을 띤 것이 많아, 심리 요인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접근 방식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심 접근법은 효과 면에서 매우 강력한 접근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어 활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며, 이에 따라 국어교육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 활동의 본질은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이다. 물론, 의미 없는 텍스트는 빈 껍질과 같기 때문에 의미의 구성이 국어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성립할 것이다. 즉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의미의 전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때, 언어 형식이 수행하는 미묘한 기능에 대한 앎이 없다면 그러한 최적의 언어 형식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도 특정한 상황 맥락 속에서 특정한 언어 형식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텍스트가 체현하고 있는 의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착해 내지 못해 최적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만으로도 텍스트의 기본적 의미를 주고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텍스트가 체현하고 있는 의미 중에 축어적(literal)인 의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형식이 발휘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존재해야만 한층 더 풍성하고 주체적인 언어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³⁾

④ 위 ①의 과정이 특히 발신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 (emotion representing process) (예 : ‘아름손이 말하는 언어의 표현적 기능’)

박중훈(2007)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②의 뜻을 가진 새로운 용어로 ‘언어 형식화(linguistic realization)’를 제안한 바 있다.

3)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은 아니지만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한 수준이나 층위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국어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 예컨대 김상욱(1992, 1995), 김혜정(2002) 등도 궁극적인 지향점에서는 본고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 연구 분야에서 언어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국어활동의 텍스트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예컨대 이은희, 1993; 이삼형, 1994; 김봉순, 1996; 김혜정, 2002; 엄훈, 2002; 민병곤, 2004 등). 이들 연구는 주로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과 원리를 밝힘으로써 학습자가 배워야 할 언어 관련 내용들을 제공해 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예컨대 ‘접속 관계’나 ‘표지’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서 ‘초구조’나 ‘논증 도식’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까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이론이 존재한다면, 국어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이 이론에 근거한 실천적 연구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론이 그러한 언어 이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는 바이다.

물론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론만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체계 기능 언어학의 주된 분석 대상이 텍스트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텍스트 이론 또는 담화 이론에 체계 기능 언어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⁴⁾ 그런 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구체적인 틀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관점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다른 담화·텍스트 이론들 역시 텍스트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설명을 통해 국어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점이 다른 각 접근 방식들의 연구 성과가 모여져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박중훈(2007)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교재의 설명 텍스트와 이를 환언한 교사의 설명 텍스트를 주요 언어 장치별로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 따라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업적은 물론, 각 언어 장치의 범주에 대한 체계적 설정이 어느 정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포

4) 예컨대 대표적인 담화 이론가인 van Dijk가 1985년에 편찬한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시리즈의 제2권 중 문법에 관한 부분을 체계 기능 언어학의 집대성자인 Halliday가 집필하였고, 역시 van Dijk가 1997년에 편찬한 “Discourse Studies :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시리즈의 제1권 중 ‘장르 및 사용역 이론(Genre & Register Theory)’ 부분을 체계 기능 언어학자인 Eggins와 Martin이 집필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괄적 분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치한 범주 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이 글은 박종훈(2007)에서 설정한 각 범주를 좀더 세밀하게 다듬고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후속 연구의 성격을 띠며, 그중에서도 동성(transitivity)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동성을 다루기 전에 다음 장에서는 우선 기본 관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부터 제시하기로 한다.

2. 텍스트의 생산과 언어 장치-체계 기능 언어학의 기본 관점⁵⁾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한다고 할 때, 그 표현의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다음 문장에서 그 의미 유형을 확인해 보자.

우리는 항상 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선, 위 문장은 사건(event)을 전달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살고 있다’는 일종의 과정(Process)과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말’이라는 관여항(Participant)으로 이루어진다. 위 문장이 전달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명제적 내용에 대한 정보를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라 한다. 통상적으로 언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할 때는 대개 관념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문장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위 문장이 의문문이라면 정보의 내용은 바뀌어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결국 발신자가 수신자에 대해서 갖는 역할 관

5)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lliday(1994), Eggins(1994), Thompson(1996), 주세형(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위 문장에서는 ‘통보자의 역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대인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⁶⁾라 한다.

끝으로, 위 문장은 사용된 수단으로서의 언어 자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위 문장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언어 형식은 ‘우리는’이지, ‘항상’이나 ‘말 속에서’ 등이 아니다. 이러한 ‘출발점 부분’을 ‘주제부(Theme)’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부(Rheme)’라 한다. 무엇을 주제부로 삼고, 무엇을 설명부로 삼는가는 위 문장의 조직 방식에 관한 정보의 일종이다. 또 문장은 텍스트의 일부이므로, 이 정보는 텍스트의 조직 방식에 관한 정보⁷⁾라고도 할 수 있다. ‘주제부/ 설명부’로 실현되는 것과 같은 텍스트 조직 방식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라 한다.

인간은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언어 장치를 선택하고 사용한다. 예컨대 관념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성(transitivity) 유형 중 하나를, 대인관계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법(mood) 유형 중 하나를, 텍스트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부/ 설명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⁸⁾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의미는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요인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언어 형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은 주어진 맥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의 차원에는 문화적 맥락(장르, genre)과 상황적 맥락(사용역, register)이 있다(Thompson, 1996 : 35~36).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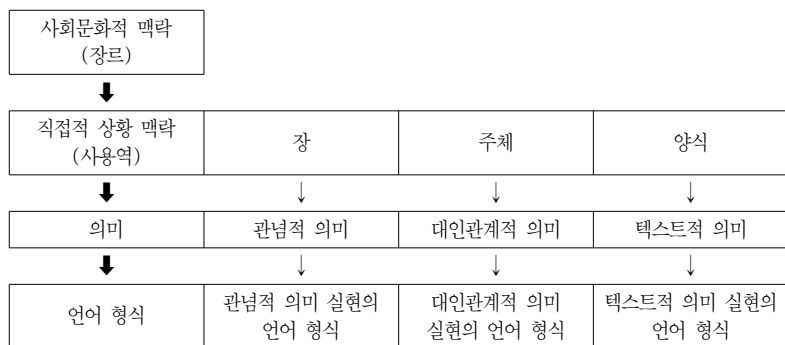
6) ‘상호작용적 의미’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예컨대 주세형(2005), 박종훈(2007) 등 참조.

7) 사용된 언어가 구어에 가까운가, 문어에 가까운가의 문제 역시 텍스트의 성질에 관한 정보이므로 텍스트적 의미가 전달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8) 이것들은 주로 질 층위에서 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장치이다. 작게 보면 운소나 어휘소 선택도 일종의 언어 장치 선택이라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문법 범주들의 선택 역시 일종의 언어 장치 선택이며, 텍스트의 결속 기제로 흔히 거론되는 접속, 지시, 어휘적 결속 등도 역시 언어 장치 선택이다. 각각의 장치들이 세 유형의 의미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주 5)에 소개된 논저들과 박종훈(2007) 참조.

용역은 다시 장(field), 주체(tenor), 양식(mode)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장’은 담화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뜻하고, ‘주체’는 청자와의 역할 관계를 뜻하며, ‘양식’은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갖는 특성을 뜻한다(Eggins, 1994 : 52).

여기서 언어의 의미 실현 기능과 사용역을 관련시켜 보면 장은 관념적 의미 실현에, 주체는 대인관계적 의미 실현에, 양식은 텍스트적 의미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맥락, 의미, 언어 사이에는 실현 관계가 성립한다.⁹⁾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박종훈, 2007 : 32).



체계 기능 언어학의 기본 관점이 국어교육 이론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미·언어 형식 간의 실현 관계이다. 먼저 표현 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흔히 ‘상황 맥락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표현하라’는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지만, 어떤 언어 형식이 어떤 상황 맥락에 적절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추상적인 원리를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 구체적 사례(예문)인데,¹⁰⁾ 사용될 만한

9) 물론 이러한 실현 관계는 기계적인 결정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관계인 것이다. Eggins & Martin(1997)에 따르면 서구인들의 아침식사 메뉴로 칠면조 구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개는 토스트에 커피가 ‘전형적인 것’이다.

10) 예컨대 ‘정중어법’ 중 ‘관용의 격률’에 대한 예문으로 드는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이창덕 외, 2000) 같은 것을 말한다.

모든 예문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세 가지 의미의 전달 기능)별로 언어 장치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수행하는 기능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가 상황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맥락, 의미, 언어 형식 간에 실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장치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맥락의 유형화를 함의하게 된다.)

이해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어 장치가 주로 어떤 유형의 의미, 어떤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텍스트를 통해 맥락까지 추론하게 되는 비판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위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체계 기능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최상위의 맥락 변인으로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모든 유형의 언어의 실현 방식에 고르게 반영된다. 따라서 언어 형식으로부터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내는 비판적 이해의 교육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언어 장치들 중 ‘동성’의 개념, 유형, 구조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동성의 개념, 유형, 구조

동성(動性 ; transitivity)은 사건의 내용을 언어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건의 명제적 내용은 곧 관념적 의미이므로, 동성은 관념적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장치이며, 맥락 변인 중에서는 장(field)을 반영한다.

전통 문법에서는 ‘transitivity’를 ‘타동성’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동사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transitivity’로 본 것이다. 그러나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transitivity’는 단순히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의 문제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동사가 구조적으로 취하는 필수 성분의 문제에만 국한된 개념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은 사건의 내용을 언어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건은 보통 하나의 과정(process)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 범주는 동사이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관념적 의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에 수반되는 관여항(participant)이 곁들여져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 즉 배경(circumstance)에 관한 언어 형식도 필요하다. 예컨대 ‘거기서 운동주는 정체 불명의 주사를 맞았어요.’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거기서	운동주는	정체 불명의 주사를	맞았어요
배경	관여항	관여항	동사

동성이 사건의 과정(관념적 의미)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장치이기 때문에, 동성의 범주 유형은 과정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 즉 동사의 의미적 분류에 따라 구분된다. 박종훈(2007 : 42~46)에서는 동성 혹은 동사 분류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Eggins, 1994 ; Knapp & Watkins, 2005 ; 박영목, 1977 ; 천기석, 1984 ; 박선자, 1990 등)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동성 범주를 설정하였다.¹¹⁾

① 행위 과정 :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 변화나 유기체의 행동을 나타낸다.¹²⁾

저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관여항(행위 주체)	관여항(행위 객체)	관여항(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 11) 범주의 설정 과정은 선행 이론으로부터 범주를 만들고, 만들어진 범주를 구체적인 텍스트에 적용시키며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범주를 수정하고 수정된 범주를 다시 다른 텍스트에 적용시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검토한 텍스트의 수량이 박종훈(2007)에서 다룬 자료와 이 글의 4장에서 다룬 짧은 텍스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수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겠다.
- 12) 아래에 사용된 예문은 주로 4장에서 분석할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거나 약간 변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범주의 사례가 4장의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박종훈(2007)에서 분석한 자료의 예문을 사용하였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여항(행위 주체)	관여항(행위 대상)	행위 동사

- ② 심리 과정 : 유기체의 심리 세계에서 사건, 즉 정신 작용을 나타낸다.

저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여항(심리 주체)	관여항(심리 내용)	심리 동사

- ③ 존재 과정 : 대상의 존재 여부를 나타낸다.¹³⁾

두 가지가	있는데	
관여항(존재 주체)	존재 동사	

- ④ 상태 과정 :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며, 하위에 관계 과정과 속성 과정이 있다.

ㄱ. 관계 과정 : 관여항 사이의 관계(관계 주체의 정체)를 나타낸다.

지금은	즐거운 설	입니다
관여항(관계 주체)	관여항(정체)	관계 동사

ㄴ. 속성 과정 : 관여항이 지니는 속성을 나타낸다.

설 연휴가	짧아서	
관여항(속성 주체)	속성 동사	

그렇다면 이러한 동성의 유형과 그 구조가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장치가 의미를 언어로 실현하는 장치가 된다는 점이다. 인간이 특정한 사건의 명제적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사건이 동성 유형 중 어떠한 과정에 해당되며, 그러한 과정을

13) 아래에 제시되는 사례는 ‘문장’이 아니고 ‘절’이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분석의 단위로서 ‘문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의미를 구현하는 언어적 장치인 동성, 서법, 주제부/설명부 등이 절 단위에서 잘 구현되고, 특히 구어 텍스트에서는 절과 문장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팀이 꼴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와 같은 발화체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인지, 아니면 두 개의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어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동사의 유형과 관여항의 성질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대상에 가장 부합하는 언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모어 화자는 대개 이러한 지식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원하는 관념적 의미에 부합하는 언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은 오히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성은 좀더 고차원적인 표현·이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동성의 선택에 따른 문체 효과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4. 텍스트 분석의 사례

분석 대상 텍스트는 2007년 2월 16일에 이루어진 전직(당시 현직) 대통령의 연설문 ‘2007년 설 메시지’이다.¹⁴⁾ 이를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설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짧아서 고향 가는 길이 좀 바쁘시겠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마음이 더 바쁘시지요? 그럴수록 안전운전 하시고, 넉넉하고 따뜻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버스기사, 택시기사 여러분, 응급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과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

올 설에는 함께 축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장사·농사도 다 잘되고, 병상에 계신 분들도 쾌유하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민생문제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미래 불안요인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열심히 풀

14) 연설문의 출처는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이다.

어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사회투자, 혁신, 개방과 같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양극화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제 때 제 때 처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분석의 원칙을 몇 가지 들어 둔다. 첫째, 언어 형식 중에는 동성과 관련 없는, 대인관계적 의미나 텍스트적 의미만을 실현하는 언어 형식도 존재한다. 이것들에 대한 기능적 범주명은 분석 상자에서 빈 칸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분석의 기본 단위는 절이지만 일단 안긴 절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아직 안긴 절의 동성과 안은 절의 동성을 입체적으로 도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안긴 절의 동성과 안은 절의 동성이 텍스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차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이 글에서 안긴 절은 전체가 하나의 관여항이 되거나 관여항의 일부로 처리하기로 한다. 셋째, 생략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 형식은 () 안에 넣어서 재구하기로 한다. 동성은 관념적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장치이기 때문에, 의미상 ‘있어야 할 것’을 재구함으로써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원칙을 따라 위 텍스트의 동성을 분석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¹⁵⁾
	속성 주체	속성 동사
(지금은)	즐거운 설	입니다 ¹⁶⁾
관계 주체	정체	관계 동사

15) ‘국민 여러분’은 호격어(vocative)로서 대인관계적 의미의 실현 형식이므로 관념적 의미를 분석하는 현 단계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칸을 비워 놓는다.

16) ‘환경’은 동성의 필수 범주는 아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짧아서	
환경	속성 주체	속성 동사	
(지금은)	즐거운 설	입니다	17)
관계 주체	정체	관계 동사	
고향 가는 길이	좁	바쁘시겠습니다	
속성 주체		속성 동사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마음이	더	바쁘시지요 18)
환경	속성 주체		속성 동사
그럴수록	(고향 가는 분들은)	안전 운전	하시고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저는)	넉넉하고 따뜻한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설날에도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	속성 주체	속성 동사	
국군장병, 경찰관, ... 응급실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해외동포 여러분과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저는)	올 설에는 함께 축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 쾌유하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 17) ‘좁’은 발신자의 심적 태도를 표명한 형식이다. 수신자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러한 심적 태도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대인관계적 의미 실현의 언어 형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능적 범주 칸을 채우지 않는다.
- 18) ‘그럴수록’은 앞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앞 문장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텍스트적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형식이다. 그러므로 아래를 빈칸으로 처리한다.

(저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저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우리는	올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행위 주체	환경	환경	행위 동사

(우리는)	어려운 민생 문제나 ... 불안 요인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행위 주체	환경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우리는)	어려운 민생 문제나 ... 불안 요인도	열심히	풀어 가고 있습니다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우리가)	동반성장과 ...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양극화 문제도	(우리에 의해)	점차	해소되고
행위 내용	행위 주체	환경	행위 동사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 주체	환경	행위 동사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심리 주체	심리 내용	심리 동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행위 주체	환경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우리가)	필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행위 동사

(우리가)	(필요한 일을)	제 때 제 때	처리해 나간다면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행위 동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위 주체	환경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국민 여러분은)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행위 주체	행위 대상	환경	행위 동사

분석의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동성의 유형 중 행위 과정과 심리 과정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박종훈(2007)에서 설명적 텍스트의 특성 중 하나가 관계 과정이 지배적이라고 한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 설명적 텍스트의 목적이 대상을 분석하고 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대상과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또는 대상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언어화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명하다. 이에 비해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의 경우, 행위 과정과 심리 과정이 지배적이게 된 것은 정치 연설문의 장르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 연설문은 ‘자신을 좋게 선전하는 것’과 ‘청자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을 갖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는 과정 유형은 ‘심리 과정’과 ‘행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 과정과 심리 과정 각각의 주체로 배정된 관여향을 보면 또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심리 과정의 주체로 주로 나타나는 관여향은 대통령인 ‘저’이고, 행위 과정의 주체로 주로 나타나는 관여향은 ‘국민 여러분’ 또는 ‘우리’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포부나 기원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행동상의 협조를 부탁하는, 관습적인 설 메시지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 선택의 양상은 ‘대통령은 주로 생각하거나 느끼고, 국민은 행동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고, 열심히 ‘행동’하는 대통령을 원할 수도 있다. 물론 행위 주체의 상당한 부분을 대통령이 포함된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 행위 주체인 경우와는 어감이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국민이 심리 주체로 나타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의도가 어떠하였고 국민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텍스트의 언어적 장치들은 이러한 정보를 해석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행위 과정의 주체로 대통령이 나타나는 문장이 몇 개 더 포함되었다면 이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새해를 준비하며 대통령이 한 일이나 할 일에 대한 문장이 더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몇 개의 문장은 내용을 유지한 채 국민이 심리 과정의 주체로 나타나는 문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중간의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마음이 더 바쁘시지요?” 같은 문장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더 바쁘다고 느끼시지요?”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러했다면 뒤의 문장의 동성 유형은 심리 과정이 되며, 심리 주체는 ‘이것저것 ... 주부님들은’이 되어, ‘국민’이 심리 주체가 되는 문장이 하나 생길 수도 있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 쾌유하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 쾌유하는 소식에 반가워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표현했다면 안긴 절에서나마 ‘국민’이 심리 주체가 될 수도 있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연설문이 수정되었다면, 대통령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실천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어교육의 결과 발신자는 처음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동성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텍스트의 수정 과정에서도 동성과 관련된 언어 형식들의 맥락적 기능을 고려하여 수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설득 텍스트에서는 동성 범주 중 심리 과정과 행위 과정이 형성되도록 문장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면, 행위 과정을 풍부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설득 텍스트의 생산 과정이나 수정 과정에서 발신자가 고려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의 맥락적 기능에 해당한다. 반면 수신자의 경우는 발신자의 의도와 동성의 선택이 갖는 효과를 관련시켜서 텍스트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예컨대 설득 텍스트에서 심리 과정과 행위 과정이 각각 수신자의 사고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텍스트에 이와 같은 동성 범주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해야 할 맥락에서 행위 과정 대신 심리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또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교육은 동성의 유형과 맥락적 기능에 대해 학습자가 뚜렷이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과 이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설 메시지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설득 텍스트에서 심리 과정이나 행위 과정이 갖게 되는 기능을 알아보았는데, 다양한 맥락에서 각각의 동성 범주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맥락에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맥락에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표현했는지를 평가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능력은 매우 고차원적인 국어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텍스트의 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탐색하여 보았다. 동성은 관념적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장치로서, 그 자체가 사건의 내용에 부합하는 절을 생성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텍스트 분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텍스트 분석은 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장치에 대한 분석들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래야만 텍스트가 전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언어 장치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는 학습자에게 수준 높은 텍스트 분석의 도구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형식의 기능에 대한 뚜렷한 인지를 바탕으로 하는 수준 높은 국어활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한된 자료와 제한된 분석 범주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논문의 제한점이다. 앞으로 언어 장치의 범주 하나하나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08. 10. 12. 투고되었으며, 2008. 11. 1.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김상욱(1992), “담화, 이데올로기, 국어교육”, 선청어문 제2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상욱(1995),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민병관(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박선자(1990), “우리말 풀이씨 뜻바탕의 설정 근거와 큰 갈래 바탕”, 주시경학보 7.
- 박영목(1977),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구조”,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 연구회.
- 박종훈(2004), “쓰기 평가를 통해 본 국어과 창의성 개념 설정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 박종훈(2005), “지식 중심의 국어교육 내용 범주 설정 시론”, 국어교육 117호.
- 박종훈(2007), “설명 화법의 언어 형식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엄 훈(2002), “조선 전기 공론 논변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구조 분석과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 이은희(1993), “접속 관계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정주리(2004), 동사, 구문, 그리고 의미, 국학자료원.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천기석(1984),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형설출판사.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 개론(제2증보판), 삼지원.
- Callaghan, M. & Rothery, J.(1988), *Teaching Factual Writing : A Genre Based Approach*, Erskineville : Metropolitan East Disadvantaged Schools Program,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Eggs, S. & Martin, J. R.(1997), Genre and Register of Discourse, In van Dijk, T.A. (ed),
Discourse as Process and Structure, Sage Pub.

Eggs, S.(199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 Printer
Publishers.

Halliday, M.A.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 Edward Arnold.

Knapp, P. & Watkins, M.(2005), *Genre, Text, Grammar-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SW Press.

Martin, J. R. & Rothery, J.(1993), Grammar : Device of Making Meaning in Writing, In
Cope, B. & Kalantziz, M.(ed), *The Powers of Literacy :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Martin, J. R.(1993), A Contextual Theory of Language, In Cope, B. & Kalantziz, M.(ed),
The Powers of Literacy :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Thompson, G.(1996),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 Arnold.

van Dijk (ed.)(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vol.2. Dimension of Discourse*, London :
Academic Press.

van Dijk (ed.)(1997),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 London : Sage Publications.

<초록>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과 그 국어교육적 의미

—동성(transitivity)을 중심으로—

박종훈

이 논문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텍스트의 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탐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맥락과 텍스트의 언어 형식 선택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기본 관점을 제시하고, 그 중 관념적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장치로서 동성의 개념과 유형,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전직(당시 현직) 대통령의 설 메시지 텍스트를 사례로,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이 갖는 국어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에는 관념적 의미, 대인관계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의 3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 각각의 의미를 언어 형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언어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 중 동성은 관념적 의미 실현의 언어 장치이며, 관여항과 배경, 동사의 연속체로 구성된다. 그 유형으로는 행위 과정, 심리 과정, 존재 과정, 속성 과정 등이 있다.

이러한 동성이 구체적으로 텍스트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설 메시지를 사례 텍스트로 분석한 결과, 설득 텍스트라는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게 심리 과정과 행위 과정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체의 능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 과정보다는 행위 과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은 이와 같은 동성 범주 선택의 맥락적 효과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 맥락에 가장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능력과 그러한 언어 형식의 사용을 평가하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국어 능력의 신장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텍스트 분석, 체계 기능 언어학, 관념적 의미, 동성, 심리 과정, 행위 과정, 설득 텍스트

<Abstract>

Functional Text Analysi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Focusing on Transitivity—

I discussed why we need to analyze text with a view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presented the basic view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discussed transitivity as linguistic realization of ideational meaning. Transitivity is composed of participant, circumstance and verb. As the processes of transitivity in Korean language, there are behavioral, mental, existential, attributive processes.

In the analysis on sample text, mental and behavioral processes were mainly selected, which suggests the typical feature of persuasive text. The analysis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utilize more behavioral process than mental for accenting subject's actional trait. I asserted that we need to teach students so that they can use language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ransitivity in specific context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 analysi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deational meaning, transitivity, mental process, behavioral process, persuasive text